

중견기업들 ‘한국판 뉴딜’ 정조준... 평균 152억씩 투자

중견권, 디지털·그린 뉴딜 설문 70% “5년내 자사주력제품 될 것” 경영 위축 불가 전년보다 투자 ↑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 조달’ 기술정보·판로개척 지원 ‘절실’

〈한국판 뉴딜 분야 중견기업 애로사항〉

구분	자금조달	기술정보획득	판로개척	핵심인력채용	관련법령(인허가 등)	정부사업 참여	기타
디지털뉴딜	21.4%	42.9%	14.3%	7.1%	7.1%	7.1%	0.1%
그린뉴딜	40.9%	26.1%	21.6%	6.8%	3.4%	0.0%	1.2%
전체	38.2%	28.4%	20.6%	6.9%	3.9%	1.0%	1.0%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들이 ‘한국판 뉴딜’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중견기업들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한 한국형 뉴딜 분야에 1개사당 평균 약 152억원씩을 투자하기로 하면서다.

특히 중견기업 10곳 중 7곳은 차세대 반도체, 태양광·풍력 등 한국판 뉴딜 부문 제품이 5년 이내 자사의 주력 제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안에 디지털 뉴딜에 12조7000억원, 그린 뉴딜에 13조2000억원을 각각 투자해 성과 창출을

도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회원기업 가운데 디지털 뉴딜 14개사, 그린 뉴딜 88개사를 대상으로 ‘한국판 뉴딜 투자 전망 및 애로 조사’를 실시해 22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기업 1곳당 디지털 뉴딜은 286억원, 그린 뉴딜은 131억원을 올해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디지털 뉴딜(2020년 249억원), 그린 뉴딜(116억원)이 각각 37억원, 15억원 늘어난 액수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째

기업들이 경영에 악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그린 분야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리고 있는 모습이다.

‘디지털’ 분야에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D.N.A 뿐만 아니라 원격 의료, 물류 등 비대면 경제, 스마트시티를 비롯한 도시 디지털 등이 두루 포함된다.

‘그린’은 풍력 저탄소 에너지, 수소 충전소 등 친환경 모빌리티 인프라, 녹색 벤처·스타트업 등을 아우르고 있다.

특히 응답기업 가운데 수소·전기차

부품 등 차세대 동력 장치,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부문을 영위하는 중견기업들은 투자 금액 대비 한국판 뉴딜 분야 투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 이후 성과 등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다.

조사대상 중견기업의 72.6%는 한국판 뉴딜 부문 제품이 5년 이내에 자사의 주력 제품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응답기업의 46.1%는 관련 부문 강화를 위해 정부나 타 기업과의 협업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관련 사업 추진 과정에서 38.2%는 ‘자금조달’을 가장 큰 애로로 지목했다. 이외에 ‘기술정보획득’(28.4%), ‘판로개척’(20.6%)도 주요 애로로 꼽혔다.

아울러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선 시중 은행의 대출 조건 완화, 구체적인 시장 정보 제공, 핵심 인력 확보 및 매칭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답변이다.

중견권 반원의 상근부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재도약을 이끌 핵심 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선 관련 분야 주력으로서 중견기업의 역량 강화와 애로 해결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대규모 투자 확대를 전망한 중견기업의 자구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한 금융 환경을 개선하고, 업종별 애로에 대응한 실효적인 정책적 지원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진공, 中企·벤처 위한 온라인 연수 강화

비대면 실시간 소통 ‘웨비나’ 운영 스마트공장, 기술·생산품질 연수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해 온라인 연수 강화에 나서고 있다.

중진공은 비대면으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웨비나 방식 연수를 강화해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중진공은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오프라인 교육이 어려워진 상

황에서 중소벤처기업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온라인 라이브 연수채널인 ‘KOSME-LIVE’를 새로 열어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공장 연수 등 온라인 콘텐츠도 확대해나가고 있다.

아울러 1·4분기에는 중소벤처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연수(12개) ▲기술품질 연수(32개) ▲생산품질 연수(10개) 과정을 진행한다. 과정은 웨비나 연수 또는 이러닝과 웨비나가 결합된 플립형 연수 등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한다.

연수 참가 신청 및 자세한 내용 확인

은 중진공 중소기업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중기 재직자의 교육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연수는 대부분 무료로 진행한다.

중진공 김이원 중소기업연수원장은 “중진공은 중소기업 대상 연수 사업의 디지털 전환과 교육훈련을 통한 재직자 직무 역량강화를 지원해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연수와 관련한 문의는 중진공 중소기업연수원 기술품질연수팀으로 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롯데백화점 잠실점에 마련한 에이스 헤리츠 팝업스토어.

에이스침대 “‘에이스 헤리츠’ 체험하세요”

롯데백화점 잠실점에 팝업스토어 오픈

에이스침대가 롯데백화점 잠실점에 프리미엄 매트리스 ‘에이스 헤리츠’ 팝업스토어를 열었다.

22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고객들에게 최상위 매트리스 모델인 에이스 헤리츠를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롯데백화점 잠실점 10층 에이스침대 매장 앞에 연 팝업스토어는 이달 28일까지 운영한다.

팝업스토어를 방문해 에이스 헤리츠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담요, 디퓨저 등

으로 구성된 헤리츠 웰컴 키트와 함께 세사 고급 베게 속통을 추가로 증정한다.

특히 에비 부부라면 에이스 웨딩멤버스에 가입해 구매 금액별 사은품, 마이 크로가드 예코 5년 무상제공 등 더욱 풍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00만원 이상 구매 시 내셔널지오그래픽 백팩과 내셔널지오그래픽 캐리어(20인치, 24인치 중 택1) ▲400만원 이상 내셔널지오그래픽 24인치 캐리어 ▲300만원 이상 내셔널지오그래픽 20인치 캐리어 ▲200만원 이상 내셔널지오그래픽 백팩을 각각 선물한다. /김승호 기자

공영쇼핑 온라인 쇼핑몰 새단장

공영쇼핑이 새해를 맞아 온라인 쇼핑몰을 새롭게 단장하고 고객들을 찾아간다.

공영쇼핑은 온라인 이용 고객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도입을 골자로 하는 ‘PC·모바일 2.0 리뉴얼’을 단행하고 이를 기념하는 이벤트를 22일부터 진행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언택트 소비 확산에 따라 공영쇼핑 온라인몰인 PC 및 모바일 채널 전체 페이지의 사용자환경(UI)·사용자경험(UX), 디자인 등을 대폭 개선했다.

상품 설명과 상품평의 경우 이미지와 텍스트가 아닌 동영상을 활용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한 점도 눈에 띈다.

이에 따라 공영쇼핑은 이날부터 이달 28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모바일 구매 시 누적 금액대별로 5만원 이하 10% 적립·5만원 초과~10만원 이하 15% 적립·10만원 초과 20% 적립금을 각각 증정한다.

/김승호 기자

한세에스24그룹, 스타트업 육성 본격화

스파크랩과 스타트업 지원 ‘맞손’

한세에스24그룹이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나섰다.

한세에스는 계열사인 한세에스24파트너스가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인 스파크랩과 국내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이날 ‘스파크랩 17기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참가 기업을 모집하는 등 협업을 본격화한다.

또 지원 업체 가운데 여성 창업자가 경영하거나 양성평등 기업문화에 기여하는 업체를 별도 선발해 한세에스24홀딩스그룹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콘텐츠, 이커머스, 플랫폼, 블록체인, 패션 등 한세에스24홀딩스의 계열사인 에스24, 한세실업, 한세엠케이 등과 사업적 연관성을 가진 스타트업에게는 멘토링 및 사업적 네트워크를



(왼쪽부터) 김유진 스파크랩 대표, 김석환 한세에스24홀딩스 부회장, 이세호 한세에스24파트너스 대표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세에스24

제공해 동반 성장도 도모한다.

올해 초 설립한 한세에스24파트너스는 한세에스24홀딩스그룹이 보다 전문적인 스타트업 투자 및 지원 확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만든 액셀러레이터다.

김석환 한세에스24홀딩스 부회장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초기 스타트업에게 신뢰감을 주는 든든한 멘토이자 파트너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휴앤쇼핑 개인정보 관리체계 우수성 인정받아

ISMS-P 사후 인증 획득

휴앤쇼핑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사후 인증 획득을 통해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22일 휴앤쇼핑에 따르면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고시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합한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관리 체계다.

이를 통해 각종 보안위협으로부터 주

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절차와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호대책을 수립·운영하기 위한 체계의 수립 여부를 확인한다.

인증을 받기 위해선 각 영역별 총 102개의 인증기준과 인증위원회의 적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인증은 인증 취득 후 2년간 유지되며 기간 내 사후 심사를 통해 인증 유지 여부를 검토한다. 휴앤쇼핑은 지난해 처음 취득한 이후 같은해 10월 1차 사후 심사를 받았으며 결함사항에 대한 조치를 진행해 이번에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김승호 기자